논어 17편 양화 12장 · 원문·풀이

子曰：「色厲而內荏，譬諸小人，其猶穿窬之盜也與？」

독음 · 자왈 색려이내임 비저소인 기유천유지도야여

쉬운 풀이(요약) · 겉으로 엄하지만 속으로 나약한 사람은 담을 뚫고 넘는 도둑처럼 떳떳하지 못하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色 빛 색 색 / 厲 갈 려 려

而 말이을 이 / 內 안 내 내 / 荏 들깨 임 임 / 譬 비유할 비 비

諸 모든 제 제 / 小 작을 소 소 / 人 사람 인 / 其 그 기

猶 어미 원숭이 유 유 / 穿 뚫을 천 천 / 窬 판장문 유 유 / 之 갈 지

盜 도둑 도 도 / 也 어조사 야 / 與 너울너울할 여 여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